

전남도, '청년 주도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 본격화

목포과학대, 정부 공모 신규 선정
기존 세한대와 협력해 사업단 운영
일자리 창출·건강증진 사업 진행
"청년 삶의 질 향상·지역발전 도모"

전남도가 지역 청년이 주도해 청년 이용자(18~45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사회서비스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돼 지역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건강증진을 동시에 꾀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로는 목포과학대가 신규 청년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이에 목포과학대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세한대와 함께 '신체건강증진 서비스'와 '바른자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목포과학대 청년사업단이 제공하는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는 청년의 건강문제(비만이나 허약 등)를 개선하기 위한 운

동 처방과 식단 관리, 체질 개선 프로그램을 월 12회(주 3회) 운영한다. 서비스 가격은 24만 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10%인 2만4000원이다.

세한대학교 청년사업단은 청년의 자세 교정을 위한 △보행 측정 △척추·코어·관절 운동 △자세 훈련 등을 포함한 바른자세 프로그램은 주 1회, 월 4회 진행한다. 서비스 가격은 18만4000원, 본인 부담금은 10%인 1만8400원이다.

세한대학교의 바른자세 프로그램을 신청한 한 대학생은 "하루 대부분을 책상에

앉아 보내고 있는데, 심각한 거북목으로 자세 교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비스를 신청하게 됐다"며 "시작한 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어깨와 목의 라인이 점차 바로 잡히고, 생활 속에서 바른자세를 유지하려는 습관이 생겼다"고 밝혔다.

30대 한 청년은 "혼자 운동할 때 스쿼트나 플랭크 같은 동작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전문 강사가 1대 1로 자세를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서비스 이용을 바라는 전남 거주 18~45세 청년은 시군 복지 담당부서나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과학대 청년사업단(010-7252-3642), 세한대학교 청년사업단(061-469-153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청년의 건강과 취업 역량을 함께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시, 친환경배 재배농가에 19억원 지원

5600여곳에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광주는 배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배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19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먼저 친환경인증 배 재배농가에 ha당 120만원을 지원, 친환경면적 확대를 유도한다. 이는 전년 대비 35% 인상된 것으로, 친환경배 재배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반배 재배농가는 경작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받으며, 사업 신청 면적에 따라 올해 7월 단가가 최종 확정된다.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대상은 2024년산 배를 재배한 광주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일정면적(1000㎡ 이상)을 경작하고,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다. 광주에서는 총 5600여 농가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는 5월1~31일까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정상이 기자

진도 윤림산방 배롱나무, '올해의 나무' 선정

환경개선·녹색자금 2500만원 배정

전남도는 진도 윤림산방의 배롱나무가 산림청의 '2025 올해의 나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2025 올해의 나무 선정은 보호수가 가진 운치와 멋, 형태 등 생태·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람과 상생의 역사 등 인문학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보전·관리가 필요한 노거수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림산방은 조선시대 남해의 대가였던 소치 허련 선생이 말년에 거처하며 여생을 보냈던 화실이다. 연못과 정원이 어우러진 진도의 대표 명승지로, 연못 인공섬

에 있는 약 95년 된 배롱나무는 여름 내내 꽃을 피우고 사계절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며 윤림산방의 자연풍경을 완성하고 있다.

산림청은 배롱나무에 대해 아름다운 수형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우리 전통 정원에서 중시하는 '조화의 미(美)'를 잘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될 예정이며, 환경개선 및 홍보를 위한 녹색자금이 20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거수 주변 정리, 안내판 설치, 환경개선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중기일자리진흥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

프로그램 이수시 최대 300만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무안군을 기점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 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고,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무안군 청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선발하며, 청년들의 적성 발굴과 자신감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상담원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만 18세~34세 청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 45세 이하 지역 특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진흥원은 이수자에 한해 참여 기간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도 50만 원의 취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진행되며,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이메일(jnjob@naver.com)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뉘며, 단기 프로그램에는 △밀착 상담 △사례관리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중·장기 프로그램은 △외부 연계 활동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 등이 추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일자리정보망(job.jeonnam.go.kr)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중기일자리진흥원(061-243-1072~4)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 서구청 식품위생감시원 위촉식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15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식품접객업 위생관리 상태 점검, 식품 수거 및 검사 지원 등을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전남도, 국가 핵융합에너지 중심지 도약 꾀함

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가 회의
기술개발 및 연계 방향성 모색

전남도가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핵융합'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해당 전문가와 기술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나주시청에서 핵융합 기술 및 정책 전문가, 기업, 연구기관 등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핵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비츠로네스텍,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업계·학계·연구계를 포괄해 국내 핵융합 분야 최고 전문가, 기업 관계자,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에 발맞춰 지역 주도의 핵융합 기술개발 방향을 정하고, 실증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연계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은 전남이 보유한 에너지산업 기반, 나주 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단 중심의 연구 인프라, 국가산단 등 풍부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 핵융합 실증 기술, 첨단 부품 국산화, 지역 인력 양성 등 구체적 사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핵융합 분야 권위자인 김기만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 교수는 "핵융합 기술 개발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증을 통해 시장성과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지역 주도의 추진체계를 마련해 산업계가 찾는 지속가능한 핵융합 생태계로 연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핵융합 산업 육성은 단순한 미래 에너지를 넘어, 전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회"라며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핵융합 산업 생태계 기반을 착실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인공태양에너지 기술 실현과 연관 산업 선점을 위해 2021년 과기부 '초전도도체 시험설비 구축(498억원)' 사업을 컨택에 유치, 2028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전남도 인공태양 포럼 등 관련 전문가 포럼과 전남 인공태양 기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 인공태양 에너지산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개발(R&D)과 산학연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지원 대상 질환 1338개로 확대
'모든 연령 가능' 소득기준 완화

광주시가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상질환을 늘리고, 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완불능증 등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확대됐다. 소득 기준도 완화돼 기존에는 성인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중위소득 140% 미만 대상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진단서 인정 범위가 확대돼 주상병 또는 부상병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진단명이 대상 질환에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청구 방법도 개선해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과 팩스 제출이 가능해졌다.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환자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